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보 도 자 료	http://www.kisti.re.kr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김양희 042 - 869 - 0968 / 최영진 0947 문의: 서민호 미래정책연구부장(042-869-1034)		
배포번호 : 2017-04 배포일자 : 2017.02.07(화)	매수 : 보도자료 2매	배포처 : 대외협력실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국가 오픈사이언스의 리더, KISTI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한선화, KISTI)은 설립이후 축적해온 오픈사이언스* 자원을 통해 '오픈사이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컴퓨팅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 지원을 가속화하는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픈 사이언스는 공공 연구 성과물(출판물, 데이터 등)을 개방·공유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사회와 기업에 편익을 제고하자는 움직임으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오픈 데이터(Open Data), 개방형 협력(Open Collaboration)을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간주(OECD, 2015).

○ 최근 연구 환경과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공공의 연구 성과를 개방・공유하는 개방형 혁신인 오픈 사이언스가 국제적인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 OECD는 오픈 사이언스를 주요 정책의제로 채택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오픈 사이언스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 지난해 과학기술계는 지식의 개방과 공유, 거대과학의 성공과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차기 노벨상에 거론되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LIGO)의 중력파 검출 성공, 힉스입자 발견을 이끈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입자가속기 등은 초대형 실험장비를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협력을 통한 대표적 연구 성공 사례라 하겠다.

□ 이처럼 오픈 사이언스는 '개방과 협력'의 키워드로 앞으로의 세계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KISTI는 기관의 역량과 노하우를 담은 **▲연구성과 개방 플랫폼**인 NTIS, NDSL **▲연구데이터공유/분석 플랫폼**인 GSDC, TuPIX **▲R&D협업 플랫폼**인 EDISON과 COREEN의 공유로 개방형 과학에 앞장서고자 한다.(첨부 자료 참조)

□ 또한 오픈사이언스 플랫폼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국가슈퍼컴퓨터(HPC)와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그리고 이를 견인하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데이터연구센터 체제를 갖추고 국가차원의 오픈사이언스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끌어 디지털시대 리더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 한선화 KISTI 원장은 "국가적인 오픈사이언스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커뮤니티가 오픈사이언스를 통해 더 많은 협력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첨부) : KISTI의 Open Science 추진 전략